

2017년 네 번째 호 (통권 21호)

별마을 마을 마을

(星村, 별성 마을 촌)

"기회는 준비하는 자의 것이다."

가치 있는 삶을
만들어가는 행복 공동체



사회복지법인 성촌재단
성촌의집
www.sungchon.or.kr

※ 소식지에 게재된 글과 사진은 개인의 동의하에 수록하였습니다.

Show me the 2017!!

어느덧 가을입니다.

올 한해를 뒤틀아보고 떠올려보게 되네요.

서툴렀던 일들이 손에 익고 귀에 들어오지 않던 사회복지 관련 단어들이 쑥쑥 들리는 것은 익숙해짐이겠지요?

성촌의집에서 어느덧 일년을 함께하고 또 앞을 바라봅니다.
남은 2017년 성촌가족들에게 설렘 가득한 식사시간이 되기~

 장연희

2017년 현재가 저에게 있어 최고의

순간인 것 같습니다. 우리 성촌주민자치회의 대표로 책임감도 가지게 되었고 공예를 통해서 제가 배우고자 하는 것을 많이 얻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글을 보는 여러분들도 남은 2017년동안 많은 것은 배우고 기억할 수 있는 최고의 한해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윤진규

2017년을 지내면서 많은 생각이 지나갑니다.

먼저 이용자 부대표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이 생각나 죄송하다는 마음이 듭니다. 몸과 마음이 같이 않아서 최선을 다하지 못했네요. 올해는 금전관리를 맡아서 해보았는데 열심히 한 것 같아 기분이 좋아요. 모두들 건강하고 안전하게 남은 2017년도 활동했으면 합니다. 성촌의집 직원들 모두 사랑합니다.

 김현주-

모두들 2017년 한해를 어떻게 보내셨나요?

저는 다사다난한 2017년을 보냈습니다.

지루했던 하루도 있었고 아팠던 하루도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신나고 즐겁던 하루가 가장 많았습니다.

모두들 2017년 남은 시간들 건강하게 행복하게 보내세요.

 김현규

별마을 가족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문득 깨닫게 되는 2017년입니다.

가족으로 함께하고 별들을 어루만질 수 있는 특권을 주셔 늘 웃고 다니는 사회복지사가 되었습니다. 인권에 앞서고, 인권에 예민한 현장에서 비로소 '아! 흐뭇하구나'라고 탄성을 부르던 나의 고백이 실천이 되고 삶이 되어가고 있네요.

7개월이란 시간을 보내며 그 흐뭇함이 여전히 강같이 흐르고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장순

2017년도를 지내면서 운동을 많이 하여 몸이

부드러워진 것을 제일 감사한 일로 뽑고 싶습니다. 양손을 올리면 소리가 나오 팔이 아파 올리기가 쉽지 않았는데 꾸준히 운동을 하여 지금은 양손이 잘 올라갑니다. 저랑 생활하는 모든 복지사님들이 친절하게 해주시고 많은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들이 좋았던 것 같아요. 다른 것들은 생각이 안납니다.^^

 이신희-

재미있GO, 알기쉽GO, 운동하GO

인천장애인생활체육
흥미로운 뉴스포츠 3GO 교실

도전과 경쟁을 중심으로 한 근대스포츠의 스포츠활동에서 벗어나 운동을 하는데 있어 참여하고 활동하는 본연의 즐거움을 깨우치기 위한 뉴스포츠!

- 재밌게 운동하는 것이 최고야...우리 가족분들에게 딱 맞지 않을까?
- 뉴스포츠라는 것이 있는데 직접 체험해보는 것은 어떨까?
- 즐겁게 운동을 하고 새로운 것들을 접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접근하게 되었던
뉴스포츠!



인천장애인체육회와 함께 준비하고 진행하였던 '흥미로운 뉴스포츠 3GO 교실'이 4월 3일부터 9월 6일까지 약 6개월간 진행했다.



▲ 볼링골프



▲ 스포츠 스태킹



▲ 패드민턴



▲ 플라잉 디스크



▲ 후크볼



모두가 즐길 수 있고 즐겁게 접근할 수 있도록 변형되고 기존의 운동과 차별성을 두고 진행되는 뉴스포츠 활동에 우리 가족분들도 즐겁게 참여하며 '운동' 본연의 재미를 느낄 수 있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새롭게 접근할 수 있는
뉴스포츠의 세계에 빠져보는 것은 어떨까요?

느낌 및 소감

- 신기한거 많았고, 운동도 되고 건강하게 되어서 좋았어요.
- 많이해보니까 좋았어요. 다음에도 많은 것을 해보고 싶어요.
- 운동되니까 좋았어요. 강사님도 잘 가르쳐줘서 좋았어요.
- 재밌었고 많이 안힘들어서 좋았어요.

- 최원준 사회복지사 -



여행은 Package? No! No! No! 내가 가는 것은 인생의 Page



여행이라면 당연히 package? 아니올시다!

우리가 함께 여행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고,

우리가 향할 곳에서 어떤 일들을 하고 싶은지 직접 찾아보고 계획을 세운 우리의 여행!

내 인생의 아름다운 Page

보아라~ 행복한 얼굴을! 느껴라~ 사진 속 즐거움을!



캠핑장 : 내 마음속의 캠프파이어



남이섬 입구에서



남이섬 잣나무길



남이섬 초원에서



양평 두물머리



전주 : 비 오는 날의 수채화



전주동물원



한옥마을 전통성당



남부야시장



레일바이크





계룡산 : 도시탈출



경주 : 신라로 가는 길



경상도일대 : 왕복 1,200km 실화나?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추억의 조각들. 올 한해의 특별한 추억을 만들기 위한 프로젝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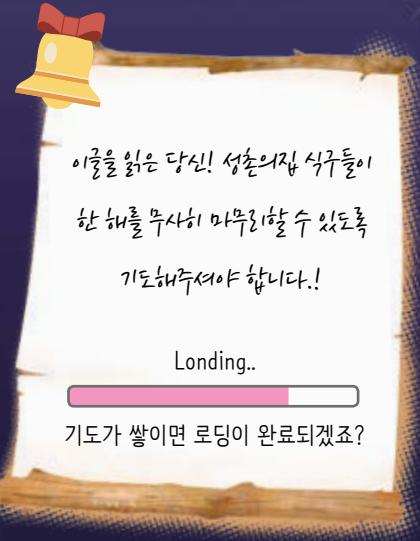
아직 2발 남았다...탕!(제주도) 탕!(해외여행)...우리의 여행은 계속된다...to be continue...

제주도, 해외여행 내용은 다음 소식지에서 소개하겠습니다. 기대해주세요~^^



깜짝이야! 벌써 송년행사라고??

한 해의 꽃 중의 하나 송년행사 페이지입니다.! 지금부터 들어갑니다.



2017년 한 해 동안 잘 지내셨나요? 여러분의 지속적인 사랑과 관심으로 별마을 가족들도 무탈하게 보냈습니다~^^

별마을에서는 한해를 마무리하는 의미로 송년행사를 12월에 진행합니다.
모두가 함께 모여 2017년을 되돌아보며 좋은 추억을 남기려고 합니다.

우리의 멋진 송년행사는 다음 소식지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사다난했던 2017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더 멋진 2018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 정성웅 사회복지사, 최기열 사회복지사 -



인천광역시의회의장상 수상



우선, 이렇게 큰 상을 받은 것에 대해 별마을 가족들과 직원들에게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제가 별마을에 온지도 올 12월이면 어느덧 만 4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상을 받으니 그 동안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지나갑니다. 힘들고 어려웠던 일들을 해낸 것에 대한 성취감, 뿌듯함이 들기고 하고 한편으로는 맑은 일에 대해 조금 더 잘 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 잘못한 일들에 대한 미안함 등 다양한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이렇게 상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것에 대한 감사함이 크기에 앞으로 더 노력하는 자세로 임하고 별마을 가족들이 주체적으로 더 밝고,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직원들과 함께 열심히 발로 뛰고 실천하는 사회복지사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상을 받은 것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전합니다.

[조명규 사회복지사]

평범하지만 궁금한 카페(부평구 사회복지박람회)



2017년 09월 16일(토) 부평 신트리공원에서 부평구에 있는 다양한 사회복지시설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사회복지박람회가 진행되었어요. 많은 지역주민들에게 성촌의집을 알리고 장애인에 대한 인식도 개선할 수 있는 1석2조의 시간이기에 성촌의집도 사회복지박람회에 참여하였죠. 많은 지역주민들이 성촌의집 부스에 방문하셔서 장애인과 장애인거주시설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며 소통할 수 있었던 유익한 시간이었어요. 참! 그리고 많은 분들이 성촌의집 부스에 오신 이유 중 하나는 바로 맛있는 커피 때문이 아니였을까 생각합니다.(커피는 다방 커피지...커피 2, 프림 2, 설탕 2ㅋㅋ)

커피 맛이 궁금하거나 성촌의집이 궁금하신 분들은 언제나 환영입니다~^^

어서와~ 성촌은 처음이죠?^^



sungchon



♥ 좋아요 5,566개

sungchon #월미도 #북적북적 #바다가 육지라면

추석연휴에 가까운 바다를 보고 싶어 월미도를 다녀왔다. 옷을 따뜻하게 입고 차를 타고 월미도로 출발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사람들이 많아도 너무 많았다. 휠체어를 타고 사람들은 사이를 이동하는 것이 어려웠지만 공연도 보고 간식도 사먹으며 그 이상의 재미가 있었다. 간만에 선선한 바람을 맞으며 바다를 구경하니 너무 멋있었다. 함께 온 사람들도 좋아하는 것을 보고 나도 당당히 행복했다.

sungchon



♥ 좋아요 6,005개

sungchon #두근! 두근! #아파트 입주 #오늘은 내가 요리사

오늘은 체험홀 기는 날! 1박 2일 동안 청소하고 동네를 돌아다니며 필요한 것도 사고 요리를 하는 날이다. 작은 배낭에 세면도구며, 짐옷이며, 기대와 설렘도 함께 배낭에 넣었다. 아~ 떨린다. 혼자 밥, 찌개를 끓여 먹을 수 있을까? 성촌의집에서는 해줬는데. 청소는 또 어찌? 나 잘 살 수 있을까?

고민! 고민! 또 고민이 되지만 해볼 것이다. 아자~ 우리는 해낼 수 있어^^ 버스타고 Go!



sungchon



♥ 좋아요 4,576개

sungchon #엄마 찾아 삼만리 #가족 #휴게소는 호두과자

어머니가 이사했다고 하셔서 직장 쉬는 날에 대전에 다녀왔다. 고속버스를 타고 대전에 도착하니 어머니가 맞이해주셨다. 이사한 집이 예전 집의 방향과 달라서 어려웠다. 자주 다녀보면서 길을 또 익혀야겠다. 집에 가니 이모도 있었다. 셋이서 함께 점심식사도 하고 과일도 먹으면서 한동안 못했던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 저녁 즈음 되어서 다시 인천으로 돌아왔다. 돌아오는 길이 많이 아쉬웠는데 다음에 또 집에 내려가야겠다.

sungchon



♥ 좋아요 3,585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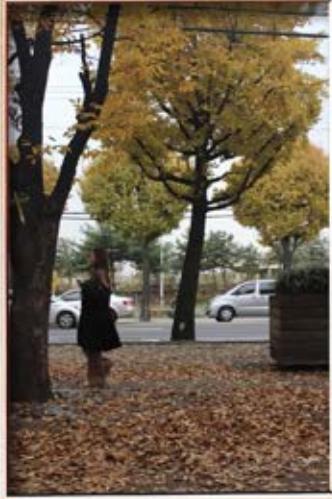
sungchon #추카! 추카! #Happy Together #인연

별마을에 새로운 가족이 있다. 꼭 다문 입술, 예리한 눈빛, 새로운 각오인지 경계인지? 알 수 없는 표정. 그러던 중 갑자기... '신발가게가 있나요?' 라고 물었다. 그것이 계기가 되었는지 우리는 조금씩 기꺼워졌다. 그렇게 시작한 별마을의 생활은 어느덧 2개월이나 지났네요.

이젠 편안하고 건강한 등지를 틀은 것 맞죠? 축하드려요. 별마을의 가족이 되신 걸.....



미술관은 살아있다



◀<부평사람>

부평자, 부평나무를 찍는데 부평사람이 우연히 프레임안에 들어왔다.
저는 부평에서 살고 있고 부평사람이니까 나는 부평이라 생각해요
부평이 바로 ‘나’예요

PHOTO BY KIM HYUN KYU

◀<그리운 가족>▶

가을이 되면 단풍이 생각나는데 가족과 나들이 가는데 떠올라 나들이 기억은 희미하지만 흩어진 가족이 그립습니다.

영희의 가을...

PHOTO BY GO YOUNG HEE



PHOTO BY LEE SHIN HEE

▲<엄마가 해주셨던 말들>

가을나무는 엄마가 해주셨던 말이 생각나고 마음에 걸린다.
엄마의 모습이 생각나 마음이 편안하고 수확을 하는 풍성함이 느껴진다.

PHOTO BY LEE SHIN HEE



위 사진은
성촌의집 이용자가
일상의 대한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사진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인천광역시 부평구 경인로701번길' = '함께해서 좋은 길'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동네에 모든 사람들이 함께 더불어 살아가고 활기찬 곳이면 어떨까? 그러면 조금 더 삶이 재밌고 행복하지 않을까?”

그래서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면 될 것 같았어요. 그러다보면 자연스럽게 친해질 테고, 친하게 되면서 서로 도와줄 테고, 도와주다 보면 더불어 살아가는 동네가 될 테고.... 이렇게 생각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정확히 알리면 우리를 더 잘 알고 이해 할 수 있을 것 같아 별마을에서 함께하기로 했죠.



**따끈따끈한 전단지를 부푼 기대를 안고
동네 구석구석 찾아다니며
동네 주민들에게 나눠줬어요.**

“안녕하세요.

성촌의집에서 왔습니다.”



어느 날부터, 우리의 노력은 결실이 되어 중·고등학생들이 찾아오고, 엄마와 함께 초등학생들이 찾아오게 되었어요. 그렇게 우리는 동네 주민들과의 소통을 시작하였죠. 함께 공부도 하고, 요리도 하고, 책도 읽고, 그림도 그리고, 자원봉사를 하며 서로를 알아갔죠.



시간이 흐르며 빙문한 사람들의 입소문을 타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늘어났어요. 입가에는 미소가 생기고, 가슴에는 무엇인가 설명할 수는 없지만 감동의 물결이 밀려왔어요.

아직 우리가 생각하는 동네가 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해야 할 일들이 더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더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우리는 우리 동네가 좋아요. 그리고 우리 동네 주민이 좋아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더불어 살아가는 동네가 될 수 있도록 이곳 저 곳 발에 땀나도록 다니고 인사하고 이야기하며 우리의 꿈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달려갈 거예요.

‘인천광역시 부평구 경인로701번길’을 ‘함께해서 좋은 길’이 될 때까지

- 조명규 사회복지사 -



별마을 메모리즈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별마을 온 가족이 모여 함께 명절음식을 만들었습니다. 갈비찜! 고구마 전! 녹두빈대떡! 메밀전! 송편! 잡채! 이름만 들어도 군침이 돌지 않나요?ㅋ 맛있는 음식과 함께 도란도란 이야기도 하며 즐거운 명절을 보냈습니다.

지역사회로 자립을 하신 분들과 함께 간담회를 통해 자립생활의 대한 이야기 및 정보 공유를 하는 유익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2017년 진행했던 사업 및 프로그램에 대해 별마을 가족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래서 사업평가회를 열어 가족들과 함께 좋았던 점, 싫었던 점 등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별마을 가족들의 삶이 풍성해지고 더 만족할 수 있는 사업 및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직업의 대한 적성을 확인하고 취업에 대한 동기부여를 할 수 있도록 직업체험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체험은 가죽공예! 뚝딱뚝딱! 멋진 공예품을 만들어보았습니다~^^



본격적인 체험홈 운영에 앞서 집꾸미기를 진행하였습니다. 뭐가 필요하지?? 고민하고 직접 마트에 가서 필요한 것을 구입하여 멋지게 집을 꾸며 보았습니다. 멋지게 꾸민 집을 우리만 보기 아까워 집들이를 진행하여 여러 사람들을 초대하여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핑! 풍! 풍! 고도의 집중력과 높은 순발력을 요구하는 탁구!
10분도 되지 않았는데...땀이 송송! 건강도 챙기고 재미도 있는 탁구! 우리함께해요~^^

행복한동행

♥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부평지사 | 2017년 09월 26일(화)

추석을 앞두고 성촌의집을 다시 방문하겠다는 약속을 지킨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부평지사는 직원들이 매달 모금한 후원금으로 성촌의집 이용가족들을 위한 건강한 쌀을 한아름 안고 오셨습니다.

다시 만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부평지사 직원들을 반갑게 맞이해준 성촌의집 이용가족들의 너너함과 추석을 앞두고 성촌의집 이용가족들과의 약속을 기억하고 찾아준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부평지사 윤순석 지사장과 직원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 사랑나눔봉사단 | 2017년 10월 14일(토)

성촌의집 이용가족들에게 드시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물어보고, 봉사하는 날 이른 아침부터 장을 보고, 이용가족들에게 정성스럽게 식사를 대접하는 사랑나눔봉사단이 마지막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정이 많이 든 만큼 아쉬움도 컸고, 마지막 봉사날이라 그런지 더욱 풍성하고 정성스럽게 준비된 점심식사가 더욱 사랑나눔 봉사단을 그립게 합니다. 지금까지 성촌의집 이용가족들을 위해 매달 1회씩 점심식사를 준비해준 이종서단장님을 비롯한 사랑나눔봉사단에게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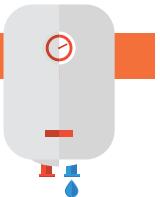


여러분의 관심과 후원으로 여자가족들이 따뜻한 공간에서 10월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여자생활관 보일러 노후로 인해 6월부터 보일러 교체 공사비 마련 모금 활동에 박차를 가하게 되었습니다. 지역사회 바자회를 통해 많은 분들의 관심 및 후원, 직원들과 가족들의 염원이 담긴 사업비 신청이 선정되고, 해피빈을 통해 수많은 콩들이 모아져 2017년 9월 29일 보일러를 교체하였습니다. 1층 · 2층 · 3층에서 가족들이 원할 때 보일러를 켜고 끌 수 있는 개별공급방식 보일러로 변경되어 갑자기 추워진 10월에 뜨끈한 물과 따뜻한 온기를 느끼며 행복하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후원해주시고 응원해주신 많은 분들께 고개 숙여 감사 인사 드립니다.



보일러 교체 공사비 결과보고



중앙공동모금회 7월 긴급이슈사업 선정 지정후원금	9,100,000원
사회복지법인 성촌재단 법인전입금(후원금) 지정후원금	1,500,000원
지역사회 바자회를 통한 모금 지정후원금	3,290,000원
해피빈 보일러교체비 모금 지정후원금	960,000원
보일러 교체 공사비 합계	14,850,000원

우리집에 주방이 생겨요.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곳에 싱크대가 설치되면서 주방이 만들어진대요~ 그것도 4곳이나요^^

사회복지법인 성촌재단의 자립생활환경사업을 위한 법인전입금(후원금)과 렛츠런 인천부평문화공감센터의 주방환경지원사업비와 휠체어장애인을 위한 싱크대를 후원해주시는 후원자덕분에

휠체어장애인을 위한 특별한 싱크대가 제작되서~ 요리도 만들고, 우리만의 식탁이 꾸려진대요.

그래서 지금 싱크대 설치를 위해 타일도 예쁘게 붙이고 전등도 바꾸고~ 한창 바빠요^^

어떤 음식을 해서 먹을까? 여러 가지 행복한 생각이 많아지고 있어요. 그런데, 준비할 것이 너무 많네요~~~
주방이 생기는데 이렇게 많은 물품들이 준비되어야 하는지 몰랐어요.

작은 정성을 모아주시면 멋진 요리로 대접할께요~ 맛있는 식사하러 오세요~^^



전기렌지, 전자렌지, 전기밥솥, 후라이팬, 냄비, 커피포트, 컵, 도마, 칼, 식기류 등등...

♥ 성촌의집으로 기증하실 수 있는 물품이 있을 경우 연락주세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행정지원팀 422-0573)



이렇게 주방이
꾸며질게에요



↳ 지금은 이렇게
공사가 진행중이에요



나눔세상 과 기아자동차 가족봉사단

가족과 함께하는 가을 나들이

Human 나눔세상은 자원봉사와 사회공헌을 위한 기부 정책 연구와 개발을 통해 기부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비영리단체로 인천에서 처음으로 자원봉사활동을 기획하면서 인천에 있는 장애인 거주시설 중에 성춘의집을 처음 방문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성춘의집에 대한 소개와 이용가족들의 생활과 지역사회와 연계된 활동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번 봉사활동에 꼭 맞는 기관이라고 하면서 성춘의집 이용가족들과 기아자동차 가족봉사단을 연계하여 1일 가족이 되어 함께하는 가을 나들이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파란 가을 하늘이 함께하는 화창하고 따뜻한 가을날, 기아자동차 가족봉사단과 성춘의집 이용가족이 1일 가족이 됨을 소개하고 인사를 나눈 후 꽃들이 활짝 피어있는 “수도권매립지(인천 서구) 국화축제”로 가을 나들이를 갔습니다.

함께 하게 된 성춘의집 이용가족과 함께 나눔세상에서 준비한 도시락을 가족별로 뜻자리를 펼치고 먹으면서 무엇을 하고 싶은지? 이곳에 무엇인 있는지? 어떻게 활동하면 좋을지 서로 의견을 나누며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가족별 국화축제 참여를 진행하였습니다.

다시 모인 가족들 손에는 에코백, 화분, 그림, 액세서리 등 국화축제에 마련된 여러 부스를 돌며 참여하여 받은 기념품들로 가득했습니다. 두 손에 가득한 선물들보다 더욱 환하게 빛났던 것은 기아자동차 가족봉사단과 함께한 성춘의집 이용가족들이었습니다. 힘들었다며 이용가족의 다리를 주물러 주는 기아자동차 가족들과 초등학교 동생들에게 물을 쟁여주는 성춘 이용가족들의 모습은 서로를 쟁기며 짧은 시간에 가족이 된 모습이었습니다.

오늘의 하이라이트는 가을 운동회^^ 한명도 빠짐없이 모두 참여하는 경기를 구성해준 나눔세상 덕분에 서로를 응원하고 이기고 지는 것보다 다 같이 참여하고 서로 할 수 있도록, 잘하고 있다고 격려하는 모습이 아름다운 날이었습니다.

아쉬움을 뒤로 하고 떠나는 시간 기아자동차 가족봉사단은 성춘 가족들에게 더 긴 시간 같이 하지 못함을 아쉬워하며 다음에 기회가 되면 다시 만나자는 인사를 건넸습니다. 성춘 가족들은 함께해서 즐거웠다면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화분과 악세사리를 선물하였습니다.

가족은 함께 하는 것 만으로도 고맙고, 고맙고, 고마운 것 같습니다.



행복은 가진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데 있습니다.

성촌의집 이용장애인의 가치 있는 삶을 함께 만들어 주세요!

♥ CMS(Cash Management Service)

직접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 정기 후원신청서 작성을 통해
금융결제원의 관리 하에 정해진 날짜에 후원자님의 계좌
에서 성촌의집 계좌로 약정금액이 이체되는 제도

후원신청방법

후원신청서 작성, 전화, 메일,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성함, 주소, 주민번호, 계좌번호, 후원금액, 출금날짜)

♥ 자동이체후원

후원계좌로 직접 입금 (예금주:성촌의집)

신용협동조합 131-009-995822

국민은행 660401-01-641623

중소기업은행 108-093168-04-011

농협은행 301-0072-5929-41

우체국 100115-01-000694

♥ 모금함

성촌의집 모금함에 후원금을 모금

모금함 설치방법

- 모금함을 놓을 작은 공간 마련
- 손님들에게 성촌모금함을 홍보
- 모금함이 다 모이면 성촌의집으로 연락

♥ 해피빈콩 (클릭으로 참여하기)

후원에 관심이 있는 누구나 온라인에서
무료로 참여하여 기부할 수 있는 방법으로

naver에서 콩배너를 클릭하고

꽁(1개=100원)을 받아

<http://happylog.naver.com/sungchon.do>,

네이버 해피빈에 “성촌의집”으로 검색 후

모금함에 콩 기부



별마을이야기 2017년 네 번째 호 (통권21호)

발행처 | 성촌의집 발행인 | 이은주 편집인 | 이향란 편집위원 | 김기철, 유성우, 장순, 장연희, 조명규

주소 | 인천시 부평구 경인로 701번길 26 (인천시 부평구 심정2동 586-2)

전화 | 032)422-0573 팩스 | 032)433-2572

홈페이지 | www.sungchon.or.kr 디자인 | 혜성디자인 032)508-2912

* 후원하신 후원금품은 법인세법 제24조와 소득세법 제34조에 의해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물품 후원

일상용품 (생활용품, 여성용품)

사무용품 (A4용지, 파일, 각종 문구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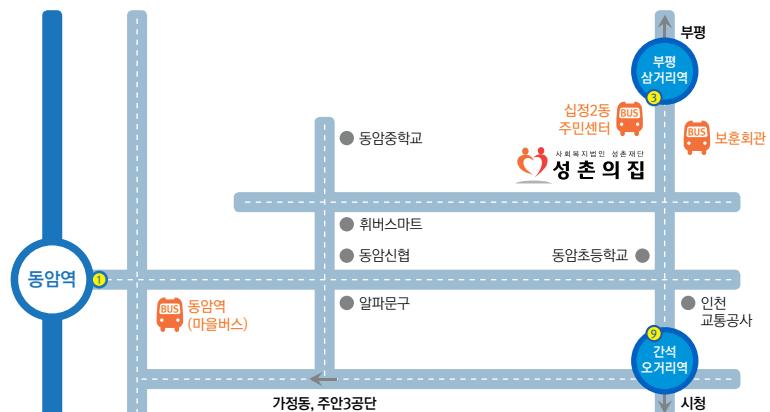
의료용품 (의약품 및 헬체어, 보조기구)

교육기자재 (학습지원을 위한 물품)

주방용품 (냄비, 수저, 그릇 등)

♥ 결연후원

성촌의집 이용장애인과 1:1 후원으로
관계형성함으로써 결연이용자의 자립지원금,
일상용품 구입비, 의료비 등으로 사용



BUS/버스

마을버스 : 531, 532A, 532B, 533, 535, 536, 537, 538, 539,
564-2(동암역 하차)

시내버스 : 2, 111-2, 34, 45번(심정2동주민센터, 보훈회관 하차)

SUBWAY/지하철

국철 : 동암역(1번 출구)
인천1호선 : 간석오거리역(9번 출구),
부평삼거리역(3번 출구)

♥ 이마트 마일리지 후원

이마트 쇼핑 후 영수증으로 이마트 매장에 비치된 적립기 또는 이마트 모바일앱 지역
단체 마일리지 적립을 통한 나눔활동입니다.(이마트지점 : 인천점 0393)

